

## 규제 완화 도시정책 전면 수정해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대거 풀려 집값 상승·교통문제 등 악화  
획일적 고층·고밀 건축 아닌 주거의 질 향상 도시재생 가능하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일반 도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의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 부양, 건축주 및 토지소유주 투자 및 개발 유도 등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점차 중요한 주거의 질 향상, 원주민들의 지속 거주 등의 가치는 외면받았기 때문이다. 경관, 조망, 일조, 주차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획일적인 고층·고밀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을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485건의 규제 완화가 검토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정부 정책 기조로 정하면서 광주시가 민원이 잦거나 과거 인허가 과정에서 발굴한 완화 대상 규제를 건의한 것이다. 이 가운데 수용·기수용된 사안은 69건, 일부 수용된 사안은 42건이었다.

문제는 도시공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 개발에 따른 교통·정체 가중, 안전 및 주거의 질 악화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자자, 개발 당사자, 토지소유자 등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면서 주민공동체, 개발 대상지 주변, 도시 전체를 감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대표적이다. 주차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단독주택지역에서 원룸, 투룸 등 중소형 다가구주택 건설붐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최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안

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필로티 건물이 곳곳에 들어섰으며, 주차난, 외부인의 진입에 따른 마찰 등의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변경심의 대상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지난 2014년에는 주택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이윤을 산정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였지만,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전세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이후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신규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도 내놨다. 같은 해 건축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주택법에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문화재 관련 통합심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금융 지원 용자, 택지 할인 공급, 인허가 특례 등의 지원을 받는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사업으로 인해 도심 내 무분별한 고층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광주시 북구 누문동에 46층 이상 개발이 가능한 것도 이 사업 때문이다.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형생활주택,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뉴스테이사업 등은 모두 대규모 주거 공급이 필요한 수도권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며 "이들 사업이 지방대도시에서는 난개발과 무분별한 주택 공급의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8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큰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충북 제천 큰 불 16명 사망

스포츠센터서~사망자 늘 듯

충북 제천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큰불이 나 21일 오후 8시 현재 16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모두 불이 난 건물 2층 목욕탕에 있다 잠면을 당했다.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8층 건물 전체로 번졌다.

이 불로 건물 2층 목욕탕에 갇혔던 여성 김모(5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기를 흡입한 부상자 18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설 이용객 20여명이 옥상으로 대피, 사다리차와 헬기로 구조됐다.

화재가 난 건물 내 시설은 헬스장, 목욕탕,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시설이어서 사상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기부천사들 있어 훈훈한 세밑 ▶6면

신팔도유람-강원 산천어 축제 ▶18면

다시보는 KIA 2017 - 김선빈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1605-1114 대학원 605-1115

## 국민의당 '분당열차' 출발

당무위원회, 바른정당과 통합 찬반 '전당원 투표' 실시 의결

국민의당 당무위원회가 2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全)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당내 통합 반대 진영에서 전당원 투표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당무위 의결은 사실상 '분당열차'의 출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김철근 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적 당무위원 75명 중 재석 48명, 찬성 45명으로 27일부터 31일까지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안 대표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투표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당무위에는 통합 반대파 당무위원들도 다수 참석했었으나, 이들은 반대 취지 발언을 한 후 의결이 되기 전에 자리를 뺐다.

당무위원장인 안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통합하는 것이 당원의 요구

라고 본 제 판단이 맞는지, 대안 제시 없이 '통합은 절대 안 된다'는 몇몇 호남 중진들의 극렬한 반대가 당원의 뜻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며 "전당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이 당의 혼란 종결과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표 결과를 부정하면 당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통합 반대 진영 의원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당내 통합 반대파는 전당원투표 보이콧과 전당대회 무산을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당원투표가 실시된다 해도 참여율 등을 놓고 신뢰성과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전당원 투표제가 적용된 지난 8·27 전당대회에서의 전체 투표율은 24.2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당원투표 참여율도 과반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市, 공사 준비에 속도

운천저수지~월드컵경기장 1공구 토목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고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차량 방식을 선정할 데 이어 일부 구간의 토목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제안공고를 내는 등 공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21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실시설계용역(토목·궤도 1공구) 강제 흙막이판 지지, 구조물 방수, 차수 그라우팅, 흙막이 공법 등 4가지 공사에 대해 제안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1공구 구간은 운천저수지~CBS방송국~서구문화센터~월드컵경기장을 잇는 2.89km로, 정거장은 모두 3개소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다.

제안서 참가자격은 특허 보유자, 특허 전용·통상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 신기술 협약자 등이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1월 중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 1345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입찰에서 우진산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차량제작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 공사 불가론을 제기하자 '입기 내 착공'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2023년 개통 예정으로 연장은 17.0km, 주요 정거장은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 등이다. 2단계는 1년 뒤인 2024년 개통되며,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침단지구~수원지구~운남지구~시청(20km), 3단계는 2025년 개통 예정으로, 백운광장~진월~효천역(4.84km)이 주요 정거장이다. 총사업비는 2조579억원으로, 전체 구간 중 4.2km는 지상 노면으로 건설되고 지하 구간 중 28.2km는 4.3m 깊이, 9.5km는 1~1.5m 깊이로 각각 건설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인삼의 생명력을 담은 혁신적 마스크 우아하게 빛나는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다

**NEW 설화수 자음생마스크**

건강하지 않은 피부상태가 지속되면 피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인삼에서 찾은 강력한 에너지로 집중적인 피부 개선을 돕는 자음생마스크

인삼 뿌리의 핵심 에너지를 담아 집중적인 보습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음생크림의 부드러움 그대로를 담은 이중 구조 더블 랩핑 시트™로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이제 자음생마스크로, 경향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마스크 인티에이징을 시작하세요

#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십스톤이 될 한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텔레그램: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